

태양광에너지 관련 특허동향 및 분석

박형달*

특허청 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

(dalph@naver.com*)

최근의 고유가 지속추세에 따라 세계각국은 신·재생에너지 개발을 에너지 전략의 초점으로 맞추고 있다. 우리나라의 경우, 신·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이 점차 증가하고는 있으나, 2005년 총 에너지 공급량 대비 2.19%에 불과하여 정부는 신·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2011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5%로 높인다는 목표하에 신·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.

최근 신·재생에너지 관련 특허출원의 현황은 2000년 684건에서 2005년 1,609건으로 연평균 19.6%의 출원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. 분야별로는 연료전지, 폐기물에너지, 태양에너지 분야가 각각 전체 출원의 32%, 27%, 21%를 나타내어 이들 세 분야가 전체의 80%를 차지하고 있다.

태양에너지와 관련된 출원동향을 국제특허분류(IPC)별로 최근 6년간('00년~'05년)의 특허 및 실용신안(이하 '특실'이라 함)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 최근 6년간 총 1200여건의 특실이 출원되었고, 2002년(159건)을 저점으로 2003년(178건), 2004년(211건), 2005년(283건)의 3년간 각각 12%, 18%, 34%의 급증세를 나타내었고, 앞으로 정부가 미래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로서 2011년까지 선진국 대비 70~90% 수준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태양광 분야도 해당기술개발 및 보급사업과 함께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.